나주 지역단체 국가하천 수만평 불법경작 물의

남평읍지역발전협 메밀 수확 판매 이어 청보리까지 탈곡

市 점용불허 해놓고 매년 수천만원 지원 불법 조장 논란

나주시의 한 지역단체가 영산강 주변 국가하천 부지 수만평을 불법점용하고 경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경작과정에서 비료까지 살포한 것으로 드러나 녹조 발생 등 영산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기관인 나주시는 이 같은 점용행위를 불허해 놓고도 단속은커녕 일자리지원 등으로 한해 수천만원씩의 보조금까지 지원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남평읍지역발전협의회는 4대강사업이후 남평 지석천 근린체육공원 일대 수만평에 유채꽃, 메밀, 청보리 등을 경관조성 목적으로 심어왔다. 하지만 하천법에는 하천구역 내에 경작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어 불법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나주시 남평읍지역발전협의회는 남평읍 지석천 고수부지 수만평을 점용허가 없이 수 년간 불법으로 경작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다.

협의회는 지난 2015년에는 유채꽃축제를 공동 개최해 5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는 메밀을 심어 판매했으며, 올해는 청보리를 심어 지난 20일 콤바인으로 탈곡까지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탈곡한 청보리를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점용지에서 경관조성용 꽃길사업을 넘어 경작 후 판매 수익까지 내고 있는 것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하천법에는 경작활동 금지는 물론 하천에서 생기는 점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등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콤바인으로 탈곡하는 것은 명백한 경작행위"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속에서 익산청으로부터 해당 하천의 유지·보수 등을 위임받은 나주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커녕 되레 각종 지원에 나서 지역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경작과정에서 비료를 살포해 영산강 녹조에 시와 지역발전협의회가 일조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나주시는 꽃길조성 등에 종자 및 '남평드들강변 친환경 꽃길조성' 관리인력으로 해마다 수천만원씩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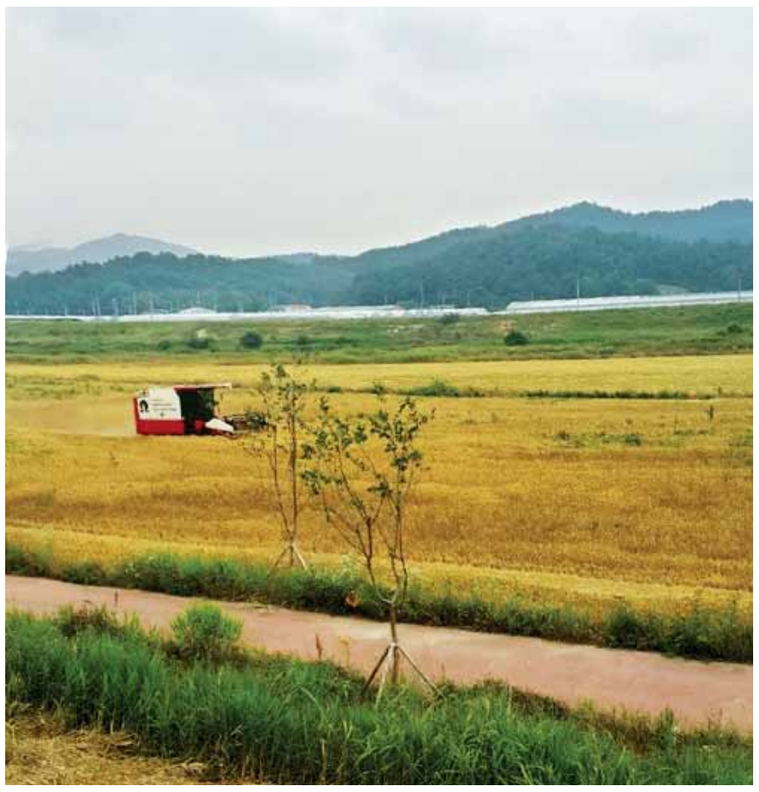
시는 또 점용허가부서가 점용을 불허했음에도 타부서에서 각종 지원이 이뤄지는 등 행정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역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녹조가 우려되지만 발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앞서 운영진이 해왔던 사업이라 중단하지도 못하고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축제 및 메밀, 청보리, 유채 등의 수익금을 경로당, 불우이웃 돕기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불법점용 사실과 탈곡까지 하는지는 몰랐다"며 "현장 조사 후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지원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남평지역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최근 나주 지석천 고수부지에서 콤바인을 동원해 청보리를 수확하고 있다.

마한농협 '햇살좋은쌀' 미국 식탁 올라요

LA 한인마트에 수출…동강농협 드림생미 이어 두번째

나주 마한농협 쌀 브랜드인 '햇살 좋은 쌀'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산 쌀 수출 전면 자유화 선언'을 계기로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산 쌀의 해외시장 진출에 나선 결과, 미국 LA 코리아타운 소재 한인마트인 '한남체인'에 '햇살좋은 쌀' 5톤(700만원 상당)을 최근 수출했다.

이번 미국 수출은 지난해 뉴욕, 텍사스주 등에 수출된 '동강농협 드림생미'에 이어 두 번째 수출 성과다.

최고의 고품질 쌀로 꼽히는 마한농협 햇살 좋은 쌀은 농업회사법인(주)골든힐(대표 한문철)을 통해 LA '한남체인' 내 전남도 농특산물판매장 코너에 진열된다.

나주시는 앞으로 농협·수출업체·전남도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외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쌀을 생산하는 등 단발성 실적이 아닌 지속적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외국쌀 수입개방과, 쌀 가격 동결 및 저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애달픈 마음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번 수출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농업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민소득 증대를 비롯한 해외 수출시장 판로개척에 주력하고 쌀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강인규(가운데) 나주시장이 최근 나주시 왕곡면 마한농협에서 열린 미국 수출기념식에서 '햇살 좋은 쌀'을 살펴보고 있다.

나주에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들어선다

손금주 의원, 전남도·나주시와 국가공모 선정 이끌어

2022년까지 186억원 투입

손금주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나주·화순)은 28일 "최근 7개 광역 자치단체가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공모사업'에 전남도(나주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등 18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나주시 빛가람동 지식산업센터 내에 구축될 '전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는 향후 콘텐츠산업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및 지역 콘텐츠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비 48억원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특히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이번 선정을 위해 전남도·나주시 등과 함께 최근 5개의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등 나주시가 지역 콘텐츠 생태계 조성의 거점으로 최적지임을 적극 알리는 등 유치에 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실제 정부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14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빛가람 혁신도시 내 기업 입주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의 유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손 의원은 "이번 전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으로 나주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성장동력 사업추진의 전략적 핵심 거점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비 유치를 통해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나주시, 시민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아마추어·소규모 공연팀 지원

나주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시민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제정된 '나주시 생활문화진흥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의 문화 여가 생활을 장려하고 문화예술도시 나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기존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전문단체(법인)의 경우 이번 공모 신청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순수 아마추어나 소규모 공연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관내 시민문화예술단체이며,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10인 이상의 회원 및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대 10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나주교육청 '도란도란 부모교실' 수료식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인성)은 "최근 나주Wee센터 빛누리실에서지난 1일부터 4회에 걸쳐 진행한 '도란도란 부모교실' 수료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도란도란 부모교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습득에 목적을 두고 자녀에 대한 이해, 발달연령에 맞는 양육방법과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자녀와의 갈등 시 대처방법, 자녀의 진로지도 방안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히 앉아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워크시트를 활용해 직접 연습해보고 다른 학부모와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나주교육지원청은 7월에는 가족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8월에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확인하는 '마음통 힐링캠프'를 개최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민 해결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주=서충열기자 scy@